

※ 민주노총 온라인 설문조사 100건 분석결과 (2019년 5월)

최저임금 올랐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

“기본급에 급식비, 교통비 더해서 최저임금 맞추니 월급이 깎일 수밖에요.”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월급명세서에서 식대, 수당 다 없어졌어요.” 콜센터노동자

“주당 15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쪼개서 주휴수당을 없앴어요.” 카페 알바노동자

“노동시간이 줄어서 실제 수령액이 적어졌어요.” 식당노동자

“휴게시간이 늘어나서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시급 6,600원, 주휴수당도 못 받고 있어요.” 편의점 알바노동자

“최저임금 준다고 했는데, 시급 8천원이었어요. 백 원 단위는 뺐대요.” 차킨집 알바노동자

“유급휴일을 전부 무급화 했어요.” 병원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그대로

2018년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311만 2천 명,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위반건수 1,773건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본급 올라도 수당 삭감으로 월급 그대로...

각종 꼼수를 합법으로 만든 국회,
6월에도 “최저임금제도 더 나쁘게 만들겠다”



다른 내일, 노동조합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을 야금야금 쪼개서 1/4로 줄었어요. 그것조차 없애려고
하길래 노조에 가입했죠. 35명이 조합원 돼서 함께 막았어요.”
(28세, 제조업 노동자)

“회사 맘대로 취업규칙을 바꿨어요. 노조 만들어서 빼앗긴 월급 찾을 거예요.”
(56세, 식당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조합과 함께 지키고 옹호!
당신 편에 생각보다 큰 힘, 민주노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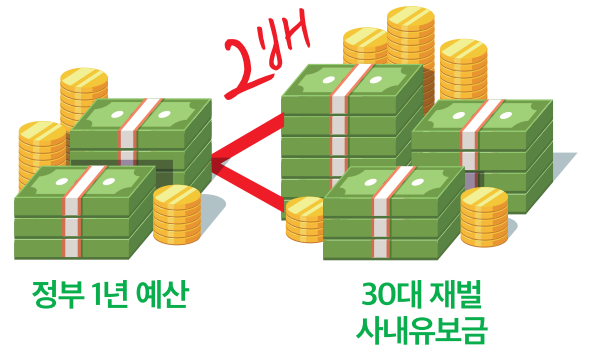
나라 망한다더니 재벌 곳간에 950조

대한민국 정부 1년 예산 470조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5대 재벌 사내유보금 665조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950조: 1년 전보다 75조 6천억 원 증가

※ 사내유보금: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 중 임금, 재료비, 이자 등 각종 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이익금으로, 상당 부분이 금융자산이나 현금성 자산.



2018년, 삼성 이견희 주식배당금 4,700억 최저임금노동자 27만명 월급

2014년 재벌총수 배당금 16.5조 ⇒ 2018년 31.8조: 2배 늘고

재벌총수 일가 주머니는 더 두둑해져

삼성 이견희 4,700억, 삼성 이재용 1,400억, 현대차 정몽구 928억, 현대중공업 정몽준-정기선 836억...

시급 8,350원 월급 1,745,150원 받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요?

최저임금 1만원, 기준을 바꾸는 시작

이런 나라 어떤가요?

최저임금 1만원 월급 209만원이 삶의 기준인 나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본급 인상으로 잔업·특근 줄어드는 나라,

최저임금 개악법 말고 '재벌개혁법' 만들어지는 나라,

'최저임금 속도조절' 말고 재벌개혁 먼저 이뤄지는 나라,

그래서 재벌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최저임금 노동자의 내일이 달라질 수 있는 나라

최저임금은 권리입니다

